

2023-06-090

BDI Ins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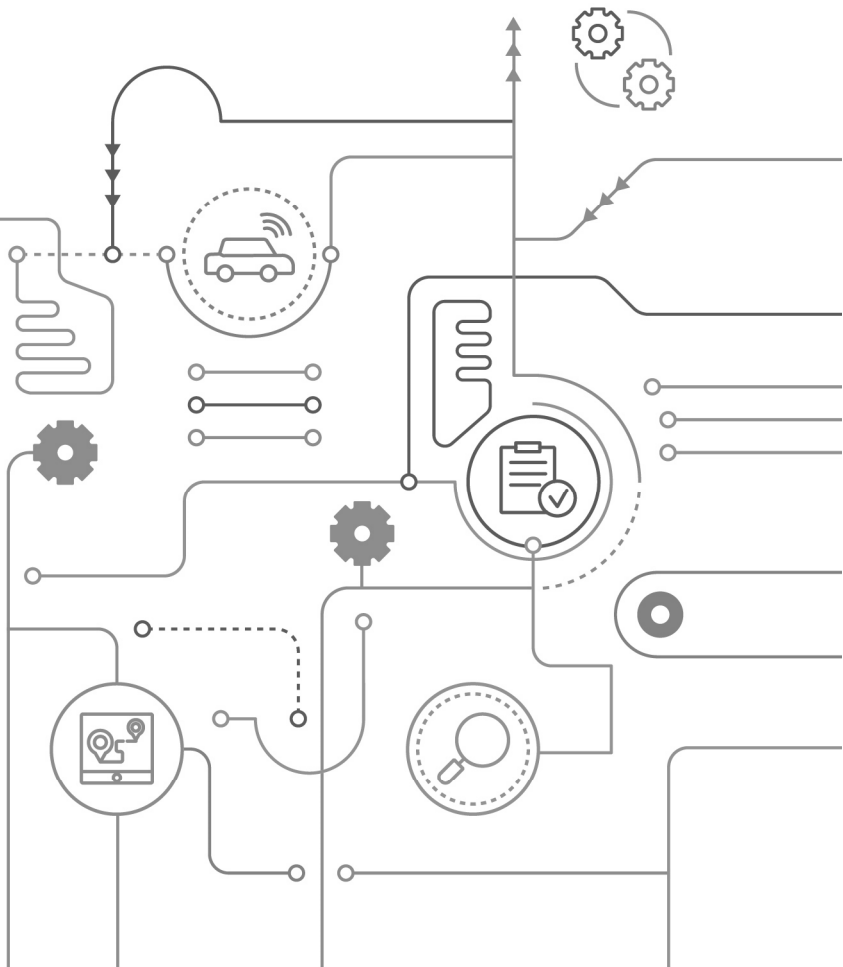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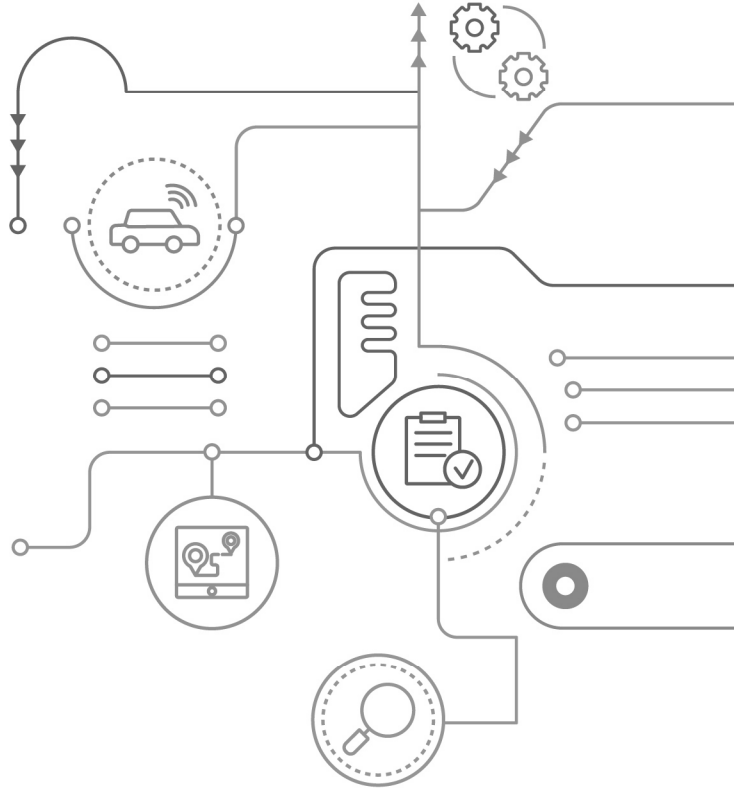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 3040세대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김세현 · 손헌일 · 김동연 · 이용인

BDI 부산연구원
BUSAN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I. 서론	4
II. 부산 3040세대 현황	5
III. 부산 3040세대 생활실태 기초조사	9
IV. 부산 3040세대가 겪는 어려움	22
V. 부산 3040세대를 위한 정책방향	30

요약

- ‘끼인 세대’ 3040세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3040세대는 청년세대와 중·장년층 사이의 소위 ‘끼인 세대’로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음
 - 부산 3040세대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며,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핵심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에 비해 지원정책은 부족함
- 부산시에 거주하는 3040세대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어려움과 정책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실태 기초조사 및 초점집단면접(FGI)을 진행
 - 생활실태 조사결과 3040세대가 부산사회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생활환경에 있어 부산 내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됨
 - FGI 결과 부산의 3040세대는 사회에 대한 기여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된다고 느끼고 있었음.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자기개발의 필요성에 동감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들로 인해 이를 포기하고 있었음
- 3040세대가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
 - 부산 3040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30대 전기·통신비, 40대 교육비 와 같이 생애주기별 정책필요에 부합할 수 있는 직접 지원정책을 추진
 - 정책 공백의 해소: 생애주기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단계별 유인정책이 필요
 - ‘나’를 위한 맞춤형 행복정책 추진: 3040세대 ‘나’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여가 등 자기개발을 위한 행복정책 추진
 - 공동체 중심 정책: 출산 및 양육, 돌봄에 따른 여성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공동체 중심 정책 마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최근 한국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대별 정책에 대한 강조 분위기 속에서 청년 및 장·노년 세대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 우리사회에서 3040세대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청년세대와 50대 사이의 소위 '끼인 세대'로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3040세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2) 연구목적

- 부산에 거주하는 3040세대의 생활실태 및 삶의 만족도를 파악
-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3040세대를 위한 정책설계 시 고려해야 할 방향성을 제안

2. 연구대상 및 방법

- 연구대상
 -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30~49세 시민
- 연구방법
 - 문헌조사: 세대별 지원정책 기사 분석, 3040세대 현황분석
 - 부산 3040세대 생활실태 기초조사: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30~49세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 수행
 - 부산 3040세대 초점집단면접(FGI):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30~49세 시민 중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한 17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수행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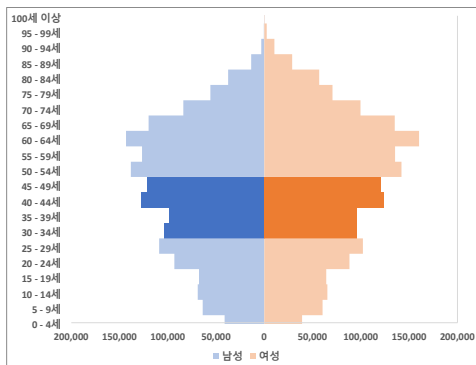
부산 3040세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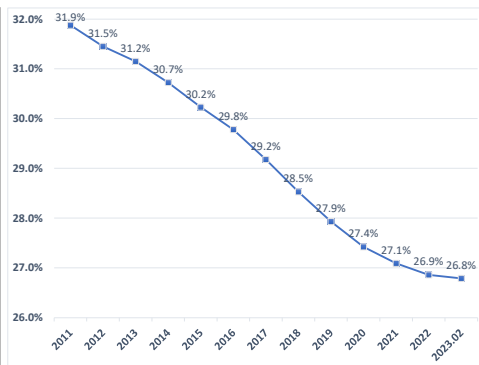
1. 부산을 이끌어나가는 3040세대

- 부산시 전체 인구(331만 5,516명) 중 3040세대는 88만 8,202명으로 전체 부산인구 중 26.8%를 차지
 - 3040세대가 부산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1.9%에서 2023년 2월 26.8%로 5.1%p 감소함
 - 같은 기간 동안 장년층(50~64세)의 비중은 2.3%p 증가였으며, 노년층(65세 이상)의 비중은 9.9%p 증가하였는데, 이 같은 현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¹⁾

〈부산의 인구피라미드〉



〈부산시 전체 인구 중 3040세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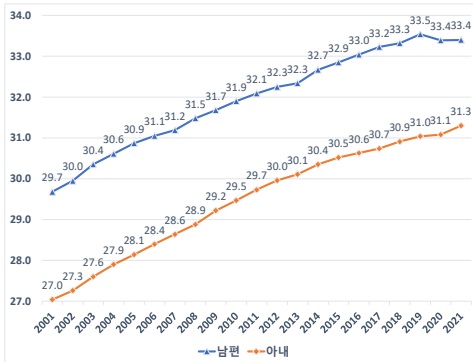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2023.02.)

- 오늘날 부산의 청년 세대는 30대 초반부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
 - 부산시 평균 초혼 연령은 2001년에 남성 29.7세, 여성 27.0세이었으나, 2022년에는 남성 33.9세 여성 31.7세로 증가함
 - 2001년 25-29세 모의 합계출산율은 129.8이었으나 2021년에는 27.5로 크게 감소한 반면, 30~34세 모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73.3에서 2021년 69.8로 약간 낮아졌으며, 35~39세 합계출산율은 2001년 14.5에서 2021년 41.6으로 증가함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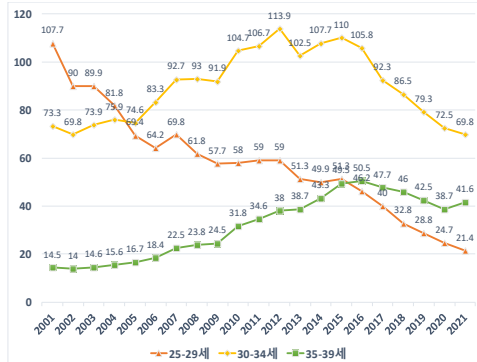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부산지역 초혼연령〉

(단위: 세)



〈연령별 부산지역 모의 합계 출산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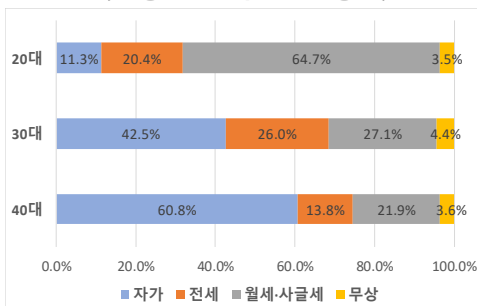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향조사(통계청, 2023)

주: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해당연령 여성인구 1천명당 출산아 수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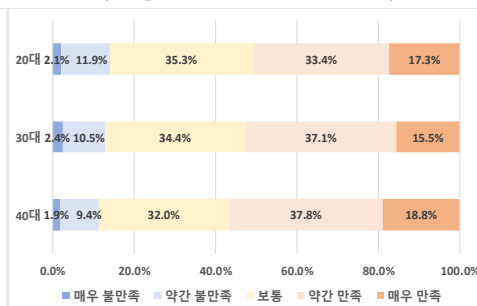
- 부산의 3040세대는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 현재 거주환경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음
 - 부산 거주민의 연령별 주택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자가가 42.5%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역시 60.8%가 자가에서 살고 있음. 반면, 20대의 경우 64.7% 이상이 월세 및 사글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 주거안정성의 차이가 존재함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40대의 56.6%(매우 만족 18.8%, 약간 만족 37.8%), 30대의 52.6%(매우만족 15.5%, 약간 만족 37.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주택 점유 형태〉



자료: 인구총조사(통계청, 2020)

〈연령별 거주주택 만족도〉



자료: 부산광역시사회조사(부산광역시, 2021)

-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3040세대의 특성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
 -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결혼연령의 상승 현상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높은 가운데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됨²⁾
 - 1970년 남성의 기대수명은 58.7세였으나 2021년은 80.6세로 증가함.³⁾ 즉, 과거 3040세대는 사회에서 어른의 위치를 차지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에 처음 진입하여 왕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의 핵심세대로 자리매김

2. ‘끼인 세대’인 3040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3040세대는 정책적 측면에서 타 세대에 비해 소외받고 있음
 -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세대별 지원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청년정책이 11만 4,219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중년의 경우 1,750건, 장년의 경우 2,157건 만이 검색되어 세대 간 지원 정책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 2015년 이후 청년 지원정책에 관한 기사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중장년 세대에 대한 정책 기사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
 - 특히 청년정책의 경우 청년기본법 시행(2020년 8월 5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3040세대에 대한 직접적 지원정책의 공백이 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남
 - 다른 연령에 비해 3040세대의 여가시간은 매우 적은 편이며, 여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음⁴⁾
- 3040세대를 위한 부산시의 정책 개발이 필요
 - 3040세대는 청년층(18~34세)과 장년층(50~65세) 사이에 끼인 세대로서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음⁵⁾
 - 만 18세~34세는 ‘청년정책’, 50대 이상의 경우 ‘50+ 정책’ 등 각 세대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들이 설계되는 가운데 3040세대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는 부족한 편
 - 3040세대에 대한 정확한 학술적·법률적 정의나 지원 조례 등은 아직까지 없으나, 특정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연령효과(age effect)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⁶⁾

2) 조성호 외.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3) 통계청. 생명표. 2021.

4) 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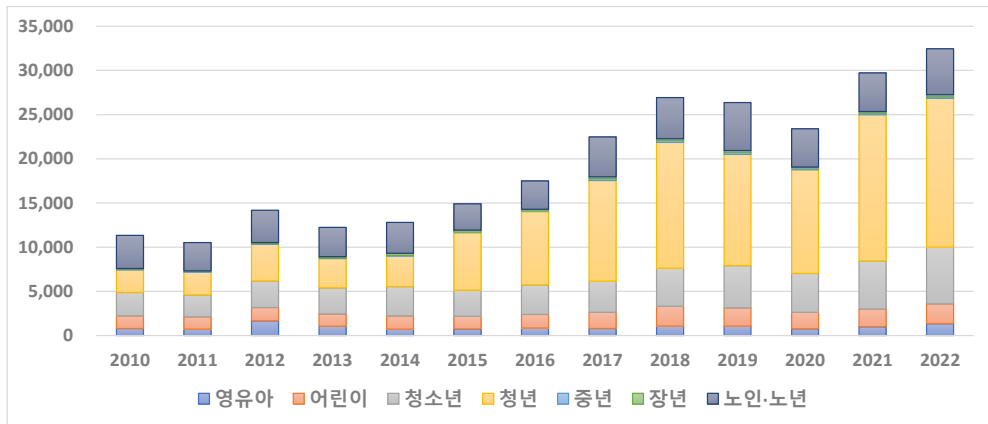
5) 유정균. 소외된 중장년층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 경기연구원. 2022.

6) 박재흥.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2009

- 최근 출산율 감소와 청년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이탈 등 인구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부산에 거주하면서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3040세대에 주목할 필요

〈세대별 지원 정책 관련 기사 수〉

(단위: 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영유아	827	731	1,677	1,066	734	765	856	811	1,085	1,087	785	1,007	1,357	12,788
어린이	1,428	1,400	1,505	1,409	1,516	1,423	1,553	1,836	2,242	2,066	1,863	1,996	2,257	22,494
청소년	2,623	2,481	3,004	2,937	3,310	2,952	3,324	3,519	4,312	4,774	4,402	5,444	6,413	49,495
청년	2,570	2,574	4,163	3,306	3,458	6,510	8,301	11,380	14,240	12,588	11,739	16,563	16,827	114,219
중년	98	77	81	83	74	77	80	216	204	219	183	189	169	1,750
장년	55	68	94	141	240	221	187	200	211	225	118	153	244	2,157
노인·노년	3,740	3,198	3,674	3,300	3,479	2,980	3,204	4,524	4,645	5,404	4,310	4,364	5,203	52,025

자료: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검색일: 2023.04.18.)

주: 검색어는 '각 세대명 AND 지원 AND 정책'으로 설정



부산 3040세대 생활실태 기초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부산시에 거주하는 3040세대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체계적으로 조사
- 조사대상의 연령, 성별, 혼인여부 및 자녀 연령 등 사회적 배경에 따른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부산시 정책방향 설정의 근거를 마련

2)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를 진행
- 면접조사 현황
 -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30~49세 시민 400명
 - 지역(동부산, 서부산, 중부산, 원도심), 성별, 연령에 비례한 할당표집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4.90\%p$
 - 조사기간: 2023.02.24. ~ 2023.03.13.
 - 조사기관: 다산리서치
- 조사 내용: 부산시에 거주하는 3040세대의 가구, 경제·노동, 주거·생활, 문화·여가, 교육·돌봄, 가치·의식 6개 영역과 정책 수요를 조사

〈면접조사 조사내용〉

주요 요소	세부 항목	
가구	• 혼인상태 및 가족구성	• 가족에 대한 가치관
경제·노동	• 경제적 부담(소비), 가구부채	• 노동 및 실업, 일자리 안정성
주거·생활	• 거주면적 및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	• 부산 생활환경 만족도
문화·여가	• 여가활동 및 문화활동 경험	• 문화환경 만족도
교육·돌봄	• 돌봄주체 및 자녀돌봄 만족도	• 평생교육경험
가치·의식	• 미래 불안요인	• 타 지역 이주 의사

3) 응답자 특성

- 부산 3040세대를 대상으로 한 시민 면접조사 응답자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0~44세가 28.0%로 가장 많았으며, 45~49세가 27.0%, 30~34세 22.8%, 35~39세 22.3% 순임. 성별의 경우 남성 204명, 여성 196명으로 남성 응답자가 약간 많음
 - 분석에서 거주지역은 동부산(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서부산(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중부산(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원도심(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의 4권역으로 구분함. 각 권역별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동부산이 32.0%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중부산 30.3%, 서부산 29.0%, 원도심 8.8% 순
 - 응답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혹은 재학)이 54.3%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졸업(혹은 재학)이 23.8%, 고졸 이하 20.0%, 대학원 이상이 2.0%로 조사됨
 -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300~400만 원 수준이 22.8%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500~600만 원이 22.5%, 400~500만 원 18.3%, 600~700만 원 15.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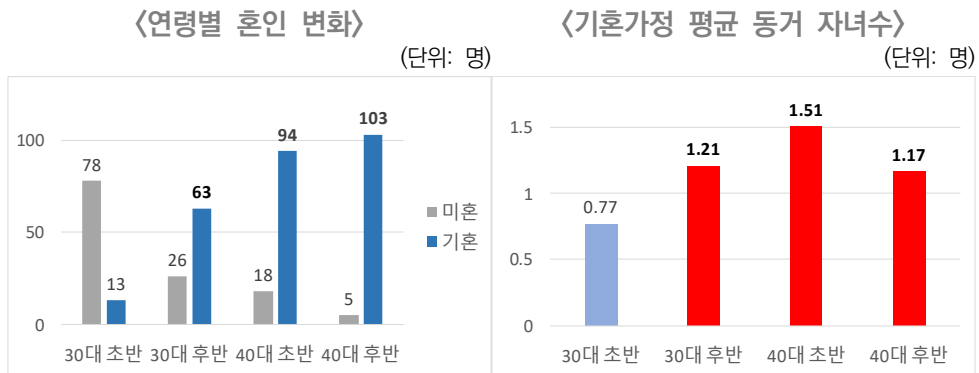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30~34세	91	22.8	성별	남성	204	51.0
	35~39세	89	22.3		여성	196	49.0
	40~44세	112	28.0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4	1.0
	45~49세	108	27.0		200~300만원	41	10.3
거주 권역	동부산	128	32.0		300~400만원	91	22.8
	서부산	116	29.0		400~500만원	73	18.3
	중부산	121	30.3		500~600만원	90	22.5
	원도심	35	8.8		600~700만원	60	15.0
학력	고졸 이하	80	20.0		700~800만원	20	5.0
	전문대	95	23.8		800만원 이상	21	5.3
	대학교	217	54.3	전체	400	100	
	대학원 이상	8	2.0				

2. 부산 3040세대 생활실태 기초조사 결과

1) 가구

- 부산의 3040세대는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대
 - 30대 초반의 경우 응답자의 14.3%만이 기혼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혼인율 역시 계속 증가하여 40대 후반의 경우 95.4%가 기혼으로 나타남
 - 기혼가정 기준 평균 동거 자녀수를 살펴보면 30대 초반 0.77명에서 40대 초반 1.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40대 후반에 들어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40대 후반 집단에서 나타나는 동거 자녀수의 감소는 자녀가 성인기로 이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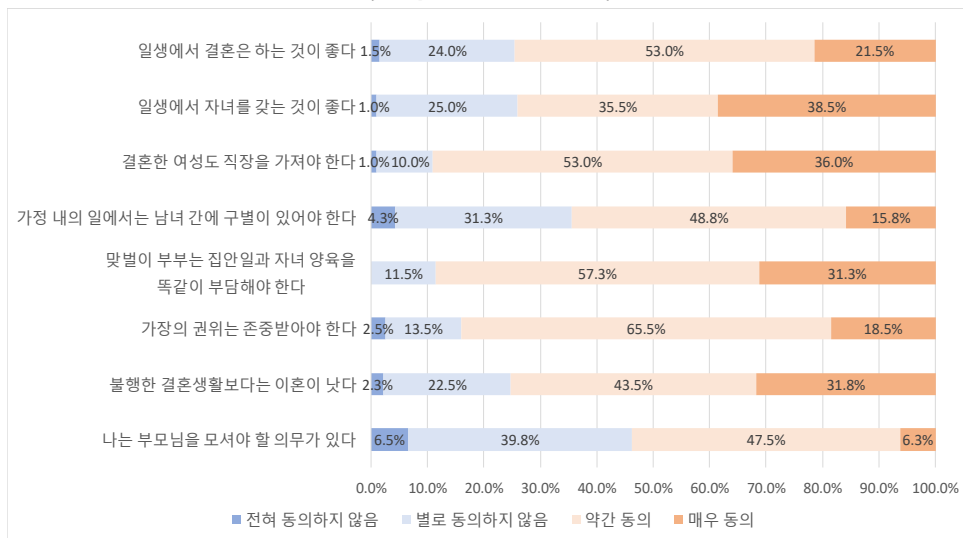


-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가족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적 활동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부산 3040세대의 74.5%가 '일생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74%의 응답자가 '일생에 자녀를 갖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혼 및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 한편, 이혼의 경우 결혼생활이 불행하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한 사람이 75.3%로 조사됨
 - 응답자의 84%가 '가장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님에 대한 인식 역시 과반수 이상(53.8%)이 자녀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응답
 - 가사의 분담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4.6%로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89%의 응답자가 '결혼한 여성도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동일하게 부담'

하여야 한다'는 응답 역시 88.6%로 높게 나타남. 이는 전통적인 가족역할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됨

-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의 경우 53.8%만이 '부모님을 모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응답

〈가족에 대한 가치관〉



2) 경제·노동

• 식료품비 및 주거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높은 가운데, 연령 및 혼인상태, 가구형태에 따라 특징이 나타남

- 일반적으로 식료품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3040세대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남. 따라서 식료품비 및 주거비 이외에 부담을 가지는 요인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식료품비와 주거비를 제외하면 30대의 경우 전기·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높게 나타났으나, 40대의 경우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40대 후반의 경우 교육비의 지출 부담이 가장 큼

-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미혼가정의 경우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높게 나타난 반면, 기혼가정의 경우 교육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높음

-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 역시 나타나 1인 가구의 경우 전기·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반면, 다인가구의 경우 교육비 부담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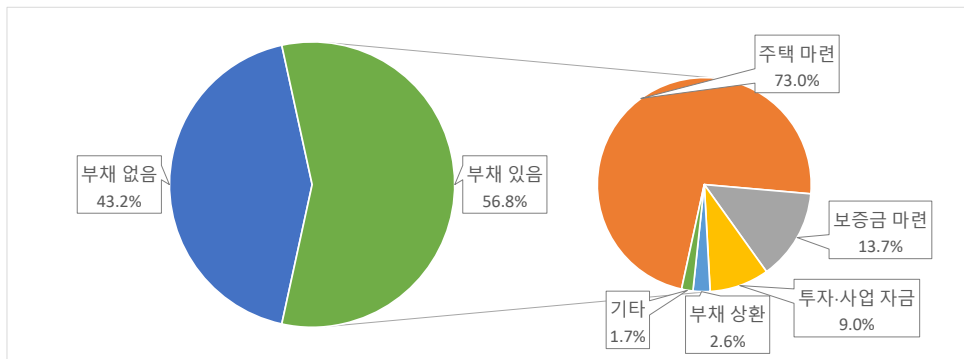
〈집단별 지출 부담〉

집단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연령	30대 초반	• 식료품비	• 주거비	• 전기·통신비
	30대 후반	• 식료품비	• 주거비	• 전기·통신비
	40대 초반	• 식료품비	• 교육비	• 주거비
	40대 후반	• 교육비	• 식료품비	• 주거비
혼인	미혼	• 식료품비	• 주거비	• 교통비
	기혼	• 식료품비	• 교육비	• 주거비
가구형태	1인 가구	• 주거비	• 식료품비	• 전기·통신비
	다인 가구	• 식료품비	• 교육비	• 주거비

주: 순위별 가중치(1순위 300%, 2순위 200%, 3순위 100%)를 적용

- 3040세대의 지출 부담 해석에 있어 생애과정 속에서 연령과 혼인상태, 가구형태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
 - 혼인율이 낮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30대 초반의 경우 전기·통신비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됨. 특히,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는 40대 후반의 경우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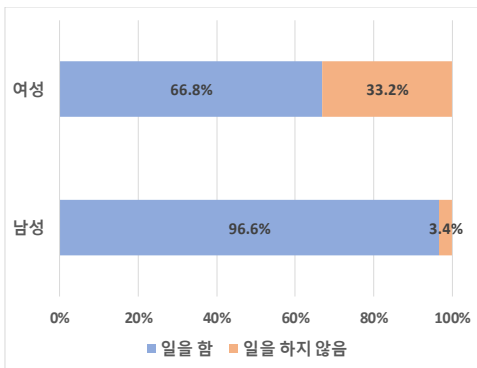
〈가구 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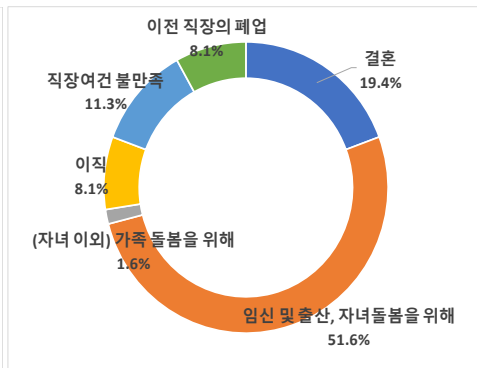
- 부산시 3040세대의 56.8%가 가구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주택과 관련 부채임
 -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86.7%(주택 마련 73.0%, 보증금 마련 13.7%)가 주택과 관련된 가구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 및 사업 자금 마련(9.0%), 부채 상환(2.6%)과 같은 금융 관련 부채의 경우 전체의 11.6%를 차지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실업률이 높은 편이며, 여성 실업의 주요 원인은 가족 돌봄임
 - 남성 응답자의 96.6%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일 경험이 있는 사람이 66.8%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여성 실업 및 휴직자의 원인을 살펴보면 '임신 및 출산, 자녀의 돌봄을 위해'가 51.6%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19.4% 순으로 나타남. 한편, 직장 및 이직과 관련된 이유로 일을 쉬고 있는 사람은 27.5%(직장여건 불만족 11.3%, 이직 8.1%, 이전 직장의 폐업 8.1%), 자녀 이외의 가족 돌봄을 위해 일을 쉬고 있는 사람은 1.6%로 조사됨

〈성별에 따른 일자리 현황〉



〈여성의 실업 및 휴직 이유〉



주: 일주일, 한시간 이상 기준

〈현재 일자리의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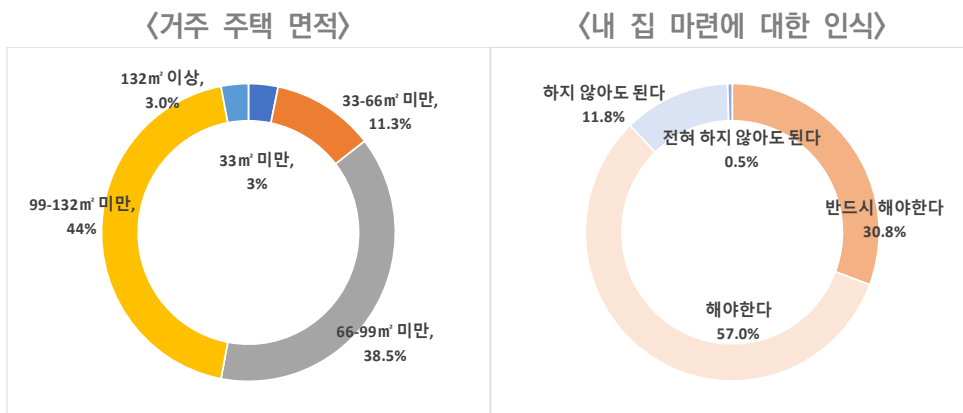
항목	매우 안정적	어느 정도 안정적	약간의 우려가 있음	실직 가능성 높음	4점 척도		t-value/ F-value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31	115	49	2	2.11	0.66	-3.250 ** 여성>남성	2.21 (0.68)
	여성	12	69	51	5	2.36	0.69		
교육수준	(a)고졸이하	1	27	26	3	2.54	0.63	8.179 *** a≥b≥c,d	2.21 (0.68)
	(b)전문대	7	46	23	2	2.26	0.65		
	(c)대학교	30	110	49	2	2.12	0.67		
	(d)대학원	5	1	2	0	1.62	0.92		

주: ** p < .01, *** p < .001

- 대체적으로 부산의 3040세대는 현재 일자리가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으나, 성별이나 학력에 따라 실직 우려에 차이가 나타남
 - 응답자의 68.0%(매우 안정적 12.9%, 어느 정도 안정적 55.1%)가 현재 일자리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실직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사람은 32.0%(약간의 우려가 있음 29.9%, 실직 가능성 높음 2.1%)로 나타남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실직 우려가 더욱 높았으며($t=-3.250, p<.01$), 고졸 이하 및 전문대 학력자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에 비해 실직 우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F=8.179, p<.001$)

3) 주거·생활

- 대다수의 부산 3040세대는 66㎡에서 132㎡(약 20~40평) 사이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함
 - 응답자의 44.0%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면적이 99㎡-132㎡ 미만(약 30~40평, 44.0%)라고 응답하였으며, 이후 66㎡-99㎡(약 20~30평, 38.5%), 33㎡-66㎡(약 10~20평, 11.3%) 순으로 나타남
 -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에 87.8%(매우 동의 30.8%, 동의 57.0%)가 동의함



- 부산의 소비환경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보임
 - 생활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소비환경 만족도가 3.14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시설 3.12, 안전 3.10 순으로 나타남. 반면, 의료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종합병원

만족도가 2.78, 응급의료 만족도가 2.7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지역별 생활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서부산 지역의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소비환경 및 안전, 의료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소비환경 만족도의 경우 동부산(3.25)이 가장 높은 반면 서부산(3.05) 및 원도심(3.00)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안전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역시 동부산(3.20)이 높고 서부산(2.98)이 낮게 나타남
 - 의료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종합병원과 응급의료 모두 동부산이 타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지역별 격차가 발견되지 않았음

〈거주지역에 따른 부산생활만족도 차이〉

항목	지역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다소 만족	매우 만족	4점 척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	F-value
						평균	표준편차		
소비환경	(a) 동부산	0	3	90	35	3.25	0.49	3.14 (0.53)	3.905 ** a≥c≥b,d
	(b) 서부산	0	15	80	21	3.05	0.56		
	(c) 중부산	0	8	85	28	3.17	0.52		
	(d) 원도심	0	5	25	5	3.00	0.54		
공공시설	(a) 동부산	0	9	80	39	3.23	0.57	3.12 (0.63)	2.358
	(b) 서부산	0	46	80	20	3.03	0.56		
	(c) 중부산	1	24	60	36	3.08	0.73		
	(d) 원도심	0	8	17	10	3.06	0.73		
안전	(a) 동부산	0	16	70	42	3.20	0.64	3.10 (0.61)	2.681 * a≥d,c≥b
	(b) 서부산	0	22	74	20	2.98	0.60		
	(c) 중부산	0	14	82	25	3.09	0.56		
	(d) 원도심	0	5	21	9	3.11	0.63		
의료환경 (종합병원)	(a) 동부산	7	27	68	94	2.88	0.79	2.78 (0.75)	11.440 *** c,d,a>b
	(b) 서부산	5	59	47	52	2.45	0.65		
	(c) 중부산	0	32	64	89	2.94	0.69		
	(d) 원도심	3	9	18	25	2.89	0.76		
의료환경 (응급의료)	(a) 동부산	2	25	98	3	2.80	0.49	2.75 (0.53)	12.910 *** c,d,a>b
	(b) 서부산	2	53	60	1	2.52	0.55		
	(c) 중부산	0	18	96	7	2.91	0.45		
	(d) 원도심	0	9	23	3	2.83	0.57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사후검정은 Scheffe의 다중비교 검정을 이용(유의도 .05 수준에서 평균 차이 검정)

4) 문화·여가

- 부산 3040세대의 영화 관람 횟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다른 문화·여가 활동은 부족한 편
 - 지난 1년간 문화·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영화가 3.24회로 가장 많았으나 다른 장르의 경우 연 1회 미만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임
 - 제시된 서울서베이⁷⁾ 조사가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3040 세대의 음악 및 무용발표회 참석 횟수(0.05)는 서울(0.98)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서울과 비교하였을 때 부산 3040세대의 운동경기 관람 비중이 높은 편임
 - 지역에서 제공되는 공연·시각예술 프로그램의 횟수 및 장르의 다양성 재고를 통해 문화를 즐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3040세대의 지난 1년간 문화·여가 활동 횟수〉

(단위: 회)

구분	부산(2023년)	서울(2020년)
음악 및 무용발표회	0.05	0.98
전통예술공연	0.07	0.05
연극공연(뮤지컬 포함)	0.13	0.23
전시회	0.24	0.28
영화	3.24	1.69
박물관	0.37	0.24
대중공연	0.25	0.09
운동경기(e스포츠 포함)	0.87	0.16

주: 서울의 경우 코로나19시기 조사가 진행된 '서울서베이(2021)'의 3040세대 응답을 제시함. 따라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부산과 서울 지역의 격차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각 지역에서 문화·여가활동 유형 차이에 집중해야 함

- 문화시설 만족도에서 동부산과 서부산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나타남
 - 동부산 거주 응답자의 경우 문화시설 만족도가 평균 2.95로 나타났으나 서부산의 경우 2.5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았음
 - 체육시설에 대한 거주지역 별 만족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7) 서울특별시. 2021 서울서베이. 2022.

〈거주지역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만족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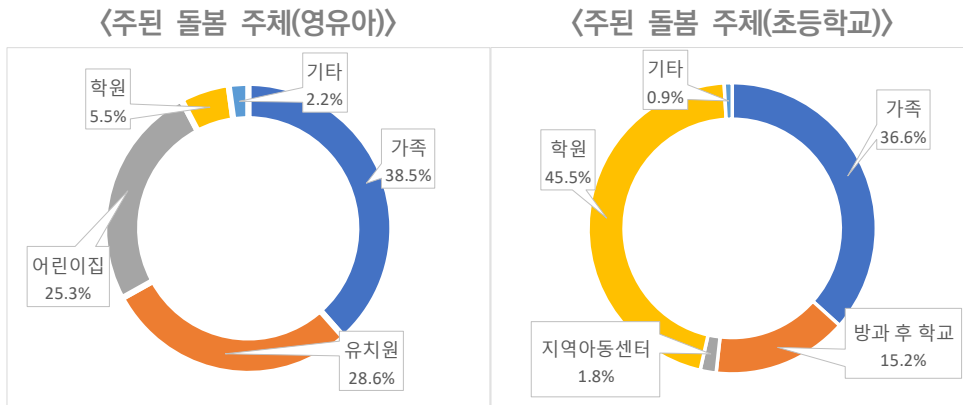
항목	지역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다소 만족	매우 만족	4점 척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	F-value
						평균	표준편차		
문화시설	(a) 동부산	2	26	77	23	2.95	0.67	2.74 (0.67)	9.128 *** a≥c,d≥b
	(b) 서부산	1	61	48	6	2.51	0.61		
	(c) 중부산	2	43	61	15	2.74	0.69		
	(d) 원도심	0	11	22	2	2.74	0.56		
체육시설	(a) 동부산	1	34	79	14	2.83	0.62	2.78 (0.62)	0.936
	(b) 서부산	1	37	62	16	2.80	0.68		
	(c) 중부산	2	38	75	6	2.70	0.59		
	(d) 원도심	0	10	23	2	2.77	0.55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사후검정은 Scheffe의 다중비교 검정을 이용(유의도 .05 수준에서 평균 차이 검정)

5) 교육·돌봄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돌봄의 부담이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이전됨
 - 자녀의 영유아 시기 주된 돌봄 주체를 살펴보면 가족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 28.6%, 어린이집 25.3% 순으로 나타남. 반면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학원의 비중이 45.5%로 크게 증가



- 초등학생을 둔 부모의 돌봄 만족도가 영유아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지역에 따른 돌봄 만족도 격차 역시 나타남
 - 초등학생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만족도는 2.97로 영유아 부모의 돌봄 만족도 (3.20)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편임

- 동부산 지역의 돌봄 만족도는 3.11로 가장 높았던 반면, 원도심의 돌봄 만족도는 2.78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음

〈자녀연령 및 거주지역에 따른 돌봄 만족도 차이〉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4점 척도		t-value/ F-value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녀연령	영유아	0	6	61	24	3.20	0.54	2.853 **	3.07 (0.57)
	초등학교	2	14	81	15	2.97	0.58		
거주지역	(a) 동부산	2	2	44	13	3.11	0.61	4.059 ** c≥a,b≥d	3.07 (0.57)
	(b) 서부산	0	9	45	9	3.00	0.54		
	(c) 중부산	0	4	35	17	3.23	0.57		
	(d) 원도심	0	5	18	0	2.78	0.42		

주1: ** p < .01

주2: 사후검정은 Scheffe의 다중비교 검정을 이용(유의도 .05 수준에서 평균 차이 검정)

- 공교육 만족도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교육의 만족도 격차가 존재
 - 동부산 지역의 사교육 만족도는 2.95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중부산 2.88, 원도심 2.83, 서부산 2.72 순으로 나타남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 만족도 차이〉

항목	지역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다소 만족	매우 만족	4점 척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	F-value
						평균	표준편차		
공교육	(a) 동부산	1	21	88	18	2.96	0.58	2.89 (0.51)	1.301
	(b) 서부산	0	28	79	9	2.84	0.54		
	(c) 중부산	0	18	99	4	2.88	0.41		
	(d) 원도심	0	6	28	1	2.86	0.43		
사교육	(a) 동부산	1	16	100	11	2.95	0.49	2.85 (0.54)	3.749 * a≥c,d≥b
	(b) 서부산	5	32	69	10	2.72	0.68		
	(c) 중부산	0	17	101	3	2.88	0.39		
	(d) 원도심	0	8	25	2	2.83	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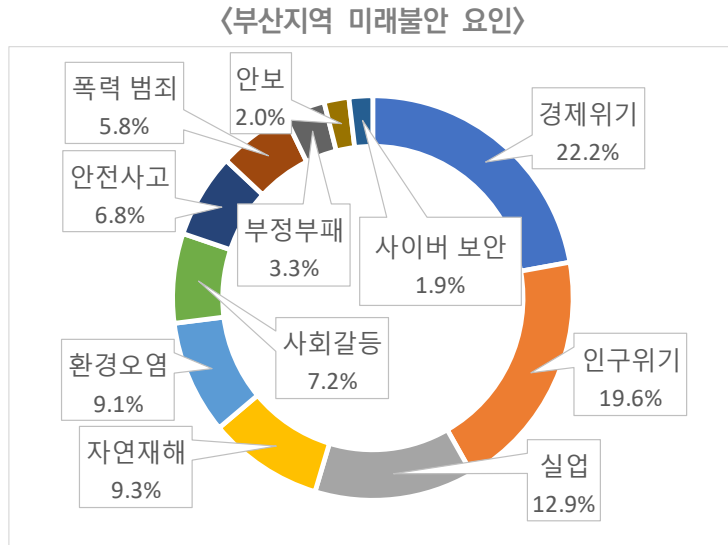
주1: * p < .05

주2: 사후검정은 Scheffe의 다중비교 검정을 이용(유의도 .05 수준에서 평균 차이 검정)

- 부산 3040세대의 경우 평생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응답자의 4.3%만이 지난 1년간 평생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6) 가치·의식

- 부산 3040세대는 부산의 미래 불안요인으로 경제위기와 인구위기, 실업 문제를 꼽음
 - 2023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같은 3고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대립과 같은 국제 정세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22.2%) 및 실업(12.9%)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
 - 부산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청년유출로 인한 인구위기(19.6%) 역시 부산 3040세대가 우려하는 문제로 나타남. 또한, 자연재해(9.3%) 및 환경오염(9.1%)에 대한 우려 역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주: 순위별 가중치(1순위 200%, 2순위 100%)를 적용

- 20대와 비교하여 3040세대는 부산에서 정착하여 삶을 영위하려는 의향이 강함
 - 30대 응답자 중 15.0%, 40대의 경우 6.4%만이 '적당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 부산연구원이 2022년 실시한 '부산청년패널조사'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20대는 동일한 문항에서 34.2%가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 이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선호지역 역시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20대 및 30대의 경우 서울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40대의 경우 경남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음

〈표 25〉 연령별 이주의향 및 이주선호지역

연령	타 지역 이주 의향		이주 선호지역		
	있음	없음	1순위	2순위	3순위
20대	34.2%	67.6%	서울	경남	경기
30대	15.0%	85.0%	서울	경남	울산
40대	6.4%	93.6%	경남	경기	울산

주: 20대 응답의 경우 '2022년 부산청년패널조사' 결과를 활용

3. 부산 3040세대 생활실태 기초조사의 시사점

- 부산 3040세대는 경제적·사회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회의 활력을 제공
 -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핵심 세대로 부산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선호
 -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활발한 경제·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음
 - 대체적으로 전통적·보수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과 양육 및 가사분담에 있어서는 매우 양성평등적인 태도를 보임
 - 부산지역의 미래 불안 요인으로 경제와 함께 인구 및 환경 문제에 주목
-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나타남
 - 식비 및 주거비, 교육비 등 가족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나”를 위한 지출은 부족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직업 안정성이 낮아 결혼 및 육아, 출산 과정에서 경력 단절 현상이 나타남
 -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가족의 돌봄 비중이 높은 편임
 -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공적 돌봄(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사적 돌봄(학원)으로의 전환이 나타나는 동시에, 자녀의 돌봄 만족도는 크게 감소
- 부산지역에서의 생활환경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됨
 - 소비환경, 안전, 문화시설, 의료 및 사교육 환경에 있어 서부산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임
 - 대체적으로 동부산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의료 및 사교육 환경의 경우 중부산 거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IV

부산 3040세대가 겪는 어려움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FGI는 ‘3040세대가 부산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
 - 부산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3040세대의 다양한 상황들을 반영하기 위해 연령과 직업, 결혼 및 직업 여부를 고려하여 초점집단면접(FGI)을 진행
 - 응답자들은 주거환경, 직업·일, 일상생활, 가족·공동체 등 부산에서의 삶과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을 응답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수행
- FGI 현황
 -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30~49세 시민 17명
 - 연령, 직업 여부 및 결혼 여부를 고려하여 FGI를 진행
 - 조사기간: 2023.03.09. 2회, 2023.03.10. 1회
 - 조사기관: 다산리서치

3) FGI 조사내용

- FGI에서는 부산에서의 3040세대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3040세대의 특성을 비롯하여 주거환경, 직업·일, 일상생활, 가족과 공동체 영역에 대해 개인의 인식과 의견을 청취
- FGI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의 워드 클라우드에서 확인이 가능

〈FGI 조사내용〉

주요 요소	세부 항목
3040세대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세대와의 차별점 • 장년 및 노년 세대와의 차별점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집 마련에 대한 인식 •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 거주지역 선택 요소 • 중요한 부산시 주거정책
직업·일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 의미 • 부산 일자리의 질과 양 • 일과 생활의 균형 • 커리어를 위한 자기개발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에서의 소비 • 경제적 어려움 • 코로나19의 영향력 • 인구위기로 인한 영향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인식(결혼관, 동거) • 부모 봉양에 대한 인식 • 출산에 대한 생각 • 부산시 결혼·출산·육아 정책

〈FGI 결과 워드 클라우드〉



4) 응답자 특성

- 부산 3040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탐색을 위한 FGI 참여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총 17명의 인터뷰 참여자 중 30대는 8명, 40대는 9명이며, 성별은 여성 9명, 남성 8명임

- 응답자 중 현재 직업을 가진 사람은 11명, 무직자는 6명이 참여
- 응답자 혼인여부의 경우 기혼자 13명, 미혼자 4명으로 구성

〈FGI 참여자 특성〉

이름	연령	성별	직업여부	혼인여부	이름	연령	성별	직업여부	혼인여부
김OO	31	여	o	x	최OO	40	남	o	x
신OO	32	남	o	o	박OO	41	여	o	o
김OO	32	남	o	x	김OO	42	남	o	o
엄OO	33	여	x	o	홍OO	42	여	o	x
김OO	34	남	o	o	김OO	43	여	x	o
김OO	36	남	o	o	박OO	44	남	o	o
서OO	37	여	x	o	박OO	45	여	x	o
정OO	38	여	x	o	임OO	47	남	o	o
정OO	40	여	x	o					

3. 부산 3040세대의 특성과 생활 속 어려움

1) 3040세대의 특성

- 3040세대는 청년과 중장년·노년 세대 가운데에 ‘끼인 세대’로서 사회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

“20대 청년은 재취업 지원을 많이 해주고, 노년층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많아져서 취업 기회가 많아졌다. 그런데 3040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나 지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40대 기혼 여성)

“원룸, 적금, 사업 지원 등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은 늘 시작하는 청년들한테만 집중이 되고 40대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세금과 4대 보험을 꼬박꼬박 내는데도 ‘우리는 왜 해당이 안 되지’ 싶어서 소외감이 든다.” (40대 기혼 여성)

“정부에서 2030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낸다. 결국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우리 세대인데 어중간하게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 (40대가) 소외 계층으로 보인다.” (40대 기혼 남성)

“일을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순간 그 정책은 실패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한다.” (30대 기혼 남성)

2)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 재테크보다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해 내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2년씩 전세 계약하면서 집을 옮기다 보니 시간적인 소비와 돈이 많이 든다. 아직은 아이가 없어서 편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 집’이 있다는 안정감이 있으면 좋겠다.” (40대 기혼 여성)

- 거주지역을 선택할 때 있어 기혼자의 경우 자녀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미혼자의 경우 교통환경을 중요하게 여김

“‘내 집’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크는 걸 생각해야 한다.” (40대 기혼 여성)

“위치, 역세권을 많이 볼 것 같다. ‘내 집’을 마련하는 거라면 역에서 도보 5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 (30대 미혼 여성)

“50세대의 경우 노후를 바라보며 이사를 하는 반면, 3040은 한참 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30대 기혼 여성)

3) 직업 및 일에 대한 인식

- 3040세대는 직업에 대해 ‘자아실현의 수단’이 아닌 ‘생계 수단’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일과 삶에 대한 균형을 강조

“기본적으로는 생계 수단이지만 최근에는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지, 이후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기다. 평생 직업은 있어도 평생 직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조기 은퇴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하고 싶다.” (40대 기혼 남성)

“직업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것보단 일과 삶의 균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직업은) 그냥 돈을 버는 수단 정도다.” (30대 미혼 여성)

-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지만, 기혼자의 경우 자녀를 위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여성의 경우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

“결국 일 생활 균형을 방해하는 건 금전적인 문제이다. 늘 불안감을 느끼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자녀도 있으니 계속 일이 쌓일 수밖에 없다.” (40대 기혼 남성)

“돈을 벌면서 생활과의 밸런스를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흘러가진 않는다.” (30대 기혼 남성)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여성 직업 교육이나 청년 직업 교육을 받아봤는데 기혼 여성, 특히 자녀 계획이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은 아예 뽑지를 않는다. 일과 생활에서 일의 균형을 맞추려고 해도 그런 직장이 없다. 그래서 솔직히 아르바이트 아니면 구하기가 힘들다.” (40대 기혼 여성)

- 자기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구조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배움을 시작하기 어려워하고 있음

“배우고 싶은 과목을 찾아봤었는데 거주지에서 1시간을 가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 제도적으로 제약도 많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있다. 부담금이 6-70만원 씩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부가 배우겠다고 그 돈을 한 번에 지출하면서 선뜻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40대 기혼 여성)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안 잡혔다. 일하고 들어가면 시간이 늦다 보니 더 자기개발 시간이 없는 것 같다.” (30대 기혼 남성)

4) 일상생활 대한 인식

-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의 상품이 맛과 품질이 좋다고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 마트의 경우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무거운 물품을 구매하는데 효과적임.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의 경우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거리의 재래시장을 평일에 자주 이용한다. 사서 들고 올 수 있을 정도로만 사는 편이다. 마트는 주말에 주기적으로 공산품, 무거운 물품 살 때 간다. 쿠팡 같은 인터넷 쇼핑도 빠르고 편해서 자주 이용한다.” (40대 기혼 여성)

“온라인쇼핑도 하지만 사람 사는 분위기가 나서 와이프와 같이 구경할 겸 운동 삼아 한 달에 두어 번 전통시장을 이용한다.” (40대 기혼 남성)

“급한 게 있을 땐 집 앞 마트를 가는 편이고, 대형마트는 정말 가끔 간다. 대부분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는데, 배송도 빠르고 소분이 잘 돼 있는 점이 편리해서 좋다.” (30대 미혼 여성)

- 코로나19,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제위기,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현재의 삶 뿐 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토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 3040세대는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세대였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돌봄에 더 신경을 써야 했던 주부들도 많이 힘들었다.” (40대 기혼 남성)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는데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만 상승했다. 의식주 같은 필수적인 걸 뺄 수도 없고 자기 생활을 포기해야 하니 힘들 수밖에 없다.” (40대 기혼 남성)

“연금 고갈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 세대가 되면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계속 내야 되나 고민이 된다.” (30대 기혼 남성)

- 기혼자들의 경우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의료 환경 및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지적

“사교육은 물론이고 병원비나 그 외적으로도 아이 한 명한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아서 생활수준이 매우 낮아진다.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는 해줬으면 좋겠다.” (30대 기혼 남성)

“자녀들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 사교육비 자체가 비싸니까 다른 곳에 쓸 여유가 없다.” (40대 기혼 남성)

“초등학교 보육 돌봄은 지역과 급여를 따지고, T.O도 얼마 없어서 조건이 충족 되더라도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돌봄 선생님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다.” (30대 기혼 여성)

“제일 문제는 응급실이다. 대학병원에 가면 소아과 전문의가 한 명뿐이라 응급실에 신생아를 봐줄 수 있는 의사가 상주를 안 해서 24개월 미만 영아들은 거의 못 간다고 봐야 한다.” (40대 기혼 여성)

5)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경향이 나타나기보다는 개인의 인식 차이로 볼 수 있음

“혼자도 좋지만 같이 사는 것이 잘 맞아서 다시 태어나도 결혼은 꼭 하고 싶다. 다만 아이가 주는 제약과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것 같다.” (40대 기혼 여성)

“결혼을 안 한 친구의 자유로움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다.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것에 제약이 생기니까 구속이 되는 기분이다. 결혼 안 하고 혼자 편하게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40대 기혼 여성)

“결혼과 출산은 해야 된다 주의다. 개인 시간이 줄어들고, 돈들 곳도 많고,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혼주의였는데 주변은 다 결혼을 하다 보니 ‘안 하는 내가 이상한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30대 미혼 남성)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굳이 찾아 나서기보단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다.” (30대 미혼 여성)

- 기혼 응답자의 경우 사실혼과 동거, 비결혼 출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대해 관심이 없는 반면, 미혼자의 경우 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

“그분들이 한 선택인데 굳이 차별이나 차이를 둘 건 없다고 생각한다.” (40대 기혼 남성)

“지금 사회적 시선은 ‘결혼 후 출산을 해야 된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이 낮은 거란 생각이 든다. 어쨌든 아기가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종류를 받아들여야 도시적,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30대 미혼 여성)

“주변에는 결혼했는데도 혼인신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출산은 출산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40대 미혼 남성)

3. FGI 시사점

- 부산의 3040세대는 사회에 대한 기여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느낌
 -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에도 불구하고 청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함
 - 3040세대가 혜택을 받는 정책적 지원은 대부분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혼 3040세대는 혜택을 받지 못함
 - 기혼자 역시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간접적으로 받을 뿐,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찾아보기 어려움
- 혼인상태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
 -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미혼자의 경우 교통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면, 기혼자의 경우 자녀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자기개발의 필요성에 동감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들로 인해 이를 포기하고 있음
 - 일에 대해 ‘자아실현의 수단’보다는 ‘생계 수단’으로 인식
 - 직업의 불안정성이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자기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금전적·제도적 한계,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인해 시작하지 못함
- 기혼 3040세대는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접하는 사회구조적 문제 및 환경요소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
 - 돌봄 영역 이외에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사교육, 의료 등)에서 경제적 부담감이 많은 편
 - 여성들의 경우 재취업 이전 직업교육 과정에서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V

부산 3040세대를 위한 정책방향



1. 소결

- 3040세대는 부산을 이끌어나가는 중추이지만 청년 및 노년 세대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 3040세대는 부산시 전체 인구의 26.8%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 활발한 경제·사회 활동을 수행
 - 3040세대는 사회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세대에 비해 정책적인 관심 및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오늘날, 가족을 구성하여 자녀를 기르는 3040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출산율 감소, 청년인구 유출과 같은 인구위기의 심화 현상 가운데, 인구재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3040세대에 주목해야 함
 - 청년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생활환경 개선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
 - 출산 및 육아,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부산 3040세대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한 기초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조사의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부산 3040세대 생활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구분	주요 결과	시사점
기초조사	가구 및 가치·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담당 • 부산에 정착하여 삶을 영위하려는 세대 • 여성의 경제 활동에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세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자녀 양육과 여성 경제활동 육구를 모두 충족 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경제·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대, 1인가구의 경우 전기·통신비, 미혼가구의 경우 교통비 부담이 높음 • 40대 및 기혼, 다인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높음 • 여성 실업률은 높고, 직업 안정성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과 혼인상태, 가구형태 등 생애 과정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한 지원 정책 설계가 필요 •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구분	주요 결과	시사점	
주거·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의 의료 환경에 대한 부정적 평가 타 지역에 비해 서부산지역의 생활환경 만족도가 낮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의료 및 전문 의료 환경의 개선, 서부산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 	
문화·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 관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다른 문화·여가활동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서 제공되는 예술 프로그램의 횟수 및 장르의 다양성 재고 	
교육·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돌봄 만족도의 하락이 나타남 지역 간 사교육 격차가 존재 3040세대는 평생교육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입학 시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 3040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FGI	3040세대특성/가족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끼인세대'로서 정책적 소외감을 경험 미혼자의 경우 비결혼 출산과 같은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40세대의 소외감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개발 3040세대 인식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인구정책 제안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혼가정의 경우 자녀교육을, 미혼가정의 경우 교통을 중요시 여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과정에 따라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
	직업 및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은 생계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 기혼자의 경우 자녀를 위해 삶을 포기 자기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중심의 지원정책이 아닌, '나'를 위한 지원정책 설계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혼자의 경우 자녀 양육과정에서 의료 환경 및 사교육 부담감을 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2. 3040세대가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

1) 부산 3040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의 강화

- 연령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 설계가 필요
 - 30대의 경우 전기·통신비 및 교통비, 40대의 경우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부담 완화 정책 추진을 고려
- 3040세대의 경우 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주로 받게 됨
 - 3040세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출산 및 자녀의 육아, 교육 관련 정책이 집행되는 가운데 간접적인 형태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 미혼이나 1인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3040세대의 경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2)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단계적 유인정책 추진

- 연령 중심의 정책설계로 인해 경계 연령에서의 공백이 발생
 - 청년정책의 경우 만 34세, 혹은 만 39세로 제한되기 때문에 경계연령(만 35세, 만 40세)에서 정책 공백이 발생
 - 연령차이로 인한 정책에서의 배제는 3040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
-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애과정에 따른 정책 설계를 통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의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정책이 잘 갖추어짐에 따라 피터팬 증후군과 유사하게 현실에 만족하고 다음 생애과정으로의 이행을 늦추는 역효과가 발생
 - 혼인가간이 길어지거나 자녀가 성장하는 경우, 혼인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로 인해 결혼을 하는 경우 더욱 손해를 보는 경우도 존재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애과정으로의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3040세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단계별 유인정책 마련이 필요
- 자녀의 영유아에서 초등학교 전환 시기에 나타나는 돌봄 공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대책 마련이 필요
 -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돌봄 만족도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
- 3040세대의 정책 공백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현재 부산시의 청년정책은 청년산학국이, 50+ 정책은 사회복지국이 담당하고 있지만 3040세대를 위한 정책을 담당할 부서는 부재
 - 자녀 관련된 정책 역시 영유아 시기에서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출산보육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의 변경으로 인해 정책 공백이 발생하기도 함
 - 부산 3040세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인구 재생산에 있는 만큼 인구정책팀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3040정책 추진이 필요

3) '나'를 위한 맞춤 행복정책 추진

- 가족을 위한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나를 위한 지출은 부족
 - 식비 및 주거비에 대한 지출이 높은 가운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점차적으로 증가

- 자녀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려움
- 생활환경에 있어 지역 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소비 및 안전, 문화, 의료, 교육 환경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 확충 및 교통 관련 정책이 요구됨
- 다른 세대에 비해 3040세대의 여가시간은 적은 편이며, 여가 만족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활발한 경제활동과 자녀 육아 등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한 세대이기 때문에 공공 돌봄 강화를 통해 3040세대의 여가활동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공연·시각예술 프로그램 및 장르의 다양성 재고를 통해 지역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 제도적·시간적 어려움으로 인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매우 어려운 세대
 - 경력단절과 같은 3040세대의 상황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공공 돌봄 강화를 통해 여가 및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

4)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공동체 중심 정책 마련

- 출산 및 양육, 돌봄 과정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
 - 부산 3040세대의 89%가 맞벌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결혼 및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음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지만,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짐
-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보장이 필요
 - 지역의 돌봄 지원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리는 등 공동체 중심의 돌봄 정책을 적극 추진
 - 자녀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미혼자들의 결혼 부담감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논문 및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2021.
- 박재홍.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2009). 10-34.
- 유정균. 소외된 중장년층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 경기연구원. 2022.
- 조성호, 변수정, 김문길, 김지민.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통계 자료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사회조사. 2021.
- 서울특별시. 2021 서울서베이. 2022.
- 통계청. 생명표. 2021.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3.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3.02.

인터넷 자료

- 빅카인즈 웹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 (접속일: 2023.04.18.)

2023-06-090

BDI Insights

연구책임	김세현 사회문화관광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참여	손현일 사회문화관광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김동연 사회문화관광연구실 초빙연구원 이용인 사회문화관광연구실 초빙연구원
행정지원	심재민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김다운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김병권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김창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주무관

발행인	신현석
발행일	2023년 06월
발행처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우)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9F ☎ (051)860-8850, FAX (051)860-8619 웹페이지 http://www.bdi.re.kr
ISBN	979-11-6886-090-2 9333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